馮玉

의

社

四氏の野おの幹部上分上全國各町町の野おの資料の世間の数三百萬園問題 教自身の資料の世間の公表立の 数自身の資料の世間の公表立の 要當おいに意見の和之間の公表立の 要當おいに意見の加えますの の野おの時間の公表立の

三聚十八日同氏の三聚十八日同氏の三聚十八日同氏の一般の関連の対するとこれで 新於是可口總司令都是 至後 工西問題至一段落을 ス全滅求을講エスでいる中間 直聯合의臨時過渡内閣舎組織 三回生月宴前の決行登記の中 日本・「漢ロ、五日級) 見

図民軍의提機

相金

亚守哲評議員

計列日立分下

対合開

The Korea Baily Niws . Scoul, Korea. Wednesday, Apr. 7th, 1926.

My childhood was inseparably woven with sights and sounds of the sea! I have only to shut my eyes, and the shipyard, my first playground, comes back to me. Again I see the boats in the stocks, my father busy with his designing, and so vividly do the scenes flash before me that I seem still to catch the mingled odors from the tar and ropes blended with the sea breezes. When still quite young we moved to Quay House, a rambling, gloomy structure full of weird stairways and unmerous passages. The place created an impression on me I have not forgotten. and often those early years were haunted by a sense of unknown terrors. Then there were long hours spent in

sailing about the creeks in a small yacht my father lent us. He was a man of many occupations, but however busy he was he always found time to come up to my bedroom and wish me good-night with a few cheery words before the final tuck-up. My mother was rather an invalid in later years, and the last striking recollection of my early childhood is that of her death.

I think my childish days ended there, and any further recollections I have take me on to my school days and the years when my father expected me to show a preference for the career in life I wished to follow.

WHY I WENT ON THE STAGE

By Sir John Martin Harvey

日別限宣別

「開城」本を次れかは不興族 會言習工後見入り写の解射にか を見るイナツロー同姓同本り日 ではるのはめるもせ





檢事
オー
加工盟
罷事

으로

一事大活動
「지난사일 오찬십일시청에 보도한바」
「지난사일 오찬십일시청에

사에 시스 (상) 전 (상) 사이 시스 (상) 전 (k) 전

米洲のスト

人보다도

可酷

자항을 아래와가리길에 의해를 아래와 기계를 가게 되었다. 그 가게 되었다. 그

三七、三及至三七、六十二八万至二四〇七五〇瓦七五〇瓦

干餘勞働者可恐慌

在氏)(三)는 지난 삼일 방생 보기 환지 등에 사하이고요한 사실이 모습이 무슨이 가는 사실 방의 보기 등에 마습고 곳이지도록일을하는인된 기

を立み投海

外호ユ

173(仁川府栗木里)8007を写父叶

에 에 쉬는 구구(終日)순사가-현장 의 등 된 보다 하면 시한 바 난지 오게 학입으로 시해는다소 부패되었 한 다는바그시려운 기범인은 아직 대 포치 및 하면 다 대라(원산)

變更叫

鋸夫盟罷城川江工事中

공장회사관정등을 의 보역구 시시 관정등을 지유가 있는 부인 네라 지유하야 보사신의주지 기점하야 보사신의주지 기점하야 안동현(安東縣) 학문은 안 소등점운 지구 의 학문은 안 소등점은 기점하여 학문은 의 이 학문은 의 이 학문은 의 학문은 학문은

호의급하하조야 즉 천가는 로 재히 야 며 합일 도 여러데 마산하최 일 인 변 커 명 되 권

시시는 자기남편 김 말로 지시 건으로 장시간다 문후 집으 가기와 가리 자살을 하라고 하다 지수는 하라고 있는

교준(金敦準)(B),과 등 김동 金阿寧) 등)무명기곳달러가 구묘한바 되용다는때이케그 가라고귀한 내막을 드릴즉하기 있는 자귀남편 김망생기

晋通校生慘死

女がいとろき いっぱいか

을 일임하기로한후 디방에가의 삼개월이상 잇스면의 제출이업 느회원을 커명할것 하무당(虚 기원이업 의원이 의원하기로 한후 디방에가의 전쟁인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이업 가을까지 하였다는데신임집 이것 이 원리 하였다는데신임집 이 이 원리 하였다는데신임집 이 이 실임하기로 하고 하였다는데 출작하원의 이 기사의 사장 이 의 이 기사의 기를 하였다는데 기를 하였다.

狐爆藥으로

디방에분

코저

의 소해가되면 그무 소등의 손해가될것으로 아마하아 시바인심장이 이라하아 시바인심장이

★本本★本本★本本★本本基本<

世대十十十十十二 지난오일오후 비사 이십분부터 인천부송림 반대박준왕(朴俊元)의집으로부 이백오십이

고 오 당치 못한일을하고 사실이 발 지난사일 오 후 다 첫 시 전에 전의 선 만 청 역 권 (京 義線萬 城 驛前) 움물이 보고하여 일시 대 에 는지 살을하라고 고 첫 단 오십 역 게 의 녀자가 해졌다고 하여 일시 대 게 의 녀자가 해졌다고하여 일시 대 게 되었다.

한에서는 정기총

지정배(金聖特)의집과 지정배(金里特)의집의로 연소될 때에 이웃사람의 필사되노력이로 연소될 때에 이케그원인을 들어 중 동일이 지지고 불다가 불이집에 보름의로 항집하여다라 날이집에 되는 다이십월쯤되리라고(이권)

▲張彩極

대문방 합골증방에서 회원간친 감상당의 여러가지 여흥이잇슨 주방열시장에 산회하면 다고

从火犯行

朝夕"困

難。流離同胞

三间七十五线 《燕岐郡二十四周七十五线 《 公州郡郡三十四十五线 《 公州郡郡三十四 《 子阴》

원인은정신병

지 素砂穿牌部流 경인선 지수의 원기의 현금사원가량을가가장이 반지 한 명목(廣本)무필 (시기상업하여 반지 한 명목(廣本)무필 (시기상업하여 원기의 현금사원가량을가개짓다 한 명의의 현금사원가량을가개짓다 하는데 일반의 매우공항중에 있다

中國官憲去益暴虐

八八三天王喜

圓榨

郷財が 八共謀忌

「サニュ はない十歳)(ま)」 平町)사백구심삼번디살된다,馬穆來)라는사람이세요 지 오죽개가(改編) 하당이 사람이 보건 그 살아이 이 원칙혈육 (그) 라는지집이 아이가 있습 다는지집이 아이가 있습

의로 얼마컨에 대구되어(全歌)사건의로 얼마컨에 대구되어(全歌)사건

Ž

상동례배당에서 아래와기를 연해와 명사로진도 환혈화의人生觀 혐기를 연기하는 기를 만들었다.

馬夫泥醉弖 小兒轢傷 중상임으로

인원무빈당(仁川府松林里)일백 한(後藤祖合)에서 고용하는 인 전부송링리(仁川府松林里)일백

◇敦化青年總督 시내와룡동에 의근도화정년회(敦化青年會)에 기회관에 거 총회를 한다는데일 인호 후 칠시반에 기회관에 거 총회를 한다는데일 이후 지俱樂部운總 시의동막하 리(市外東幕下里)에잇는 동광 구일부 (東工俱樂部)에 기리판비의 오후류시에 기리판비의 오후류시에 기리판비의 오후류시에 기리판비의 기계를 내려한다고 는심일일 오후육시에 그리판내에서 메일이정기종이를 개최한 다하며 페이후에는 회원등으로 자미있는 유회가 있다되(고양)

東幕下里小火 ハミ

떠라

市外山崎川)(考太으 보메파다 리)에지나간산월 이십이일에서 당아이시대가 표칭한지을 갈마 (高麗) 보통한교에 통합하느한 생이 발전하고 두산리(파山里) 주재소에 보고하얏습으로 등소

元山岬兒屍漂清

付号青年總會

(大邱地方法